이화여자대학교

2006학년도 학위청구논문

Macbeth의 성격 변화와 외부 요인들이 그에 미치는 영향

학과 특수교육과

영어영문학과 복수전공

이름 신미경

목 차

I. 서 론……1

II. 본 론……4

III. 결 론……21

참 고 문 헌……23

I. 서 론

*Macbeth*는 Shakespeare의 *Hamlet*, *Othello*, *King Lear*의 뒤를 이은 비극 작품이다. 희극 보다 비극이 더 많이 감동을 준다고 느끼는 까닭은 왜일까? 독자들은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비극적 주인공들이 타락하는 과정을 보며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느낀다.[1] Macbeth 또한 예외는 아니다. Macbeth는 전쟁에서 이기고,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굉장히 부러운 인물이다. 그도 인간이기에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Macbeth는 과도한 권력에 대한 야망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러한 전 과정은 일상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의 비극을 제 3자의 것이 아닌 자신의 일처럼 고통스럽게 느낀다.[2]

Macbeth에게는 무사로서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출세의 수단이고 인정받는 길이다. 그에게 Hamlet 같은 결단하지 못하고 사색만 하는 행동은 어울리지 않다. Macbeth의 사색은 Hamlet의 것과 다르다. Hamlet은 Claudius 왕을 죽이는 결단을 미루는 과정 속에

---

[1] Aristotle은 공포와 동정은 비극의 파국(catastrophe)을 형성하는 혼란으로부터 관객을 정화한다고 주장한다. 관객들은 영웅의 몰락(downfall)을 목격하면서 자신들을 동일시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의 동정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몰락은 비극의 결점(*hamartia*)에 의해 일어나며, 관객들은 그 비극의 주인공과 그의 운명 관계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Golden 112-118).
한편, Holderness는 Macbeth가 비극의 결점(야망)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주의 비극 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극의 행위들은 기대의 율동적인 흥분에서 갑작스러운 반전과 추락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리고 극의 사상적인 효과는 관중들에게 일어나는 감정들의 돌발하고 수반하는 "정화"(*catharsis*)로 보여질 수 있다고 한다(Holderness 64).

[2] 오진탁은 Macbeth의 성격은 그렇게 특출하거나 혹은 타인을 압도할 정도로 뛰어난 특성은 없는, 영웅적 성격보다는 소박하고 평범한 소시민적인 특성을 지니며, 그런 까닭에 그가 주인공으로 선택될 경우 도리어 그의 운명은 비극적인 종말로 끝을 맺게 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오진탁 13).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Macbeth는 사색과 판단, 그리고 행동이 즉시에 일어난다. Macbeth가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점은 그가 양심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악당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도 Hamlet과 같이 계속적인 내면의 갈등을 한다. 이러한 생각은 그를 악한 행동을 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주춤하게 한다. Keller는 생각은 악은 해독제 역할을 하여서, 부주의한 악의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한다:

> …thinking may provide an antidote to evil. Learning to think would then offer the individual and society protection against the dangers of thoughtless evil(Keller 41).

Macbeth는 "양심"과 싸우지만 결국 Duncan을 죽이는 악행을 단행함으로 마음 속으로부터 "Sleep no more; Macbeth hath murdered sleep."라는 환청을 듣게 된다(42). 그의 생각의 결여는 야망을 위한 살해에 대한 가책을 감소시키며, 계속적으로 그로 하여금 살인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옭아 메는 환경적인 요인은 그의 치명적인 타락이 비단 그 자신의 탓만이 아님에 설득력을 더한다.[3] 그는 마녀들의 예언과 Lady Macbeth를 통하여 욕망에

[3] Mills는 Macbeth의 쇠퇴는 그 자신의 잘못에도 있지만, 그 자신도 그의 독립의 범위를 제한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마녀들의 예언들, 공기에 그려진 단검들, 괴이한 꿈들, 무서운 전

권세를 얻어 발휘하게 된다[4]. Macbeth의 비극적인 잘못이 그의 지나친 욕망과 자만심에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없었다면 한낱 공상으로 끝났을지 모른다.

본문에서는 Macbeth의 성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변화하였으며, 마녀들과 Lady Macbeth는 그의 성격 변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 보겠다.

조들, 식인종 말들, 낮의 암흑, 폭풍, 그리고 숨겨진 별들)에 대한 피지배자일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Mills 48).

[4] 동방숙은 Morris는 Macbeth의 마음과 의지 속에 존재하고 있는 야심 단독으로 Macbeth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고 하고 있다. Macbeth의 외부에도 그의 야심 못지 않은 강한 악이 도사리고 있어 그에게 영향을 미친다. 외부의 악으로써 마녀들과 Lady Macbeth를 들고 있다(동방숙 15-16).

II. 본 론

Macbeth는 1막에서 마녀들이 “Thane of Glamis”, “Thane of Cawdor”, “that shalt be King hereafter”라고 하자 두려워했다는 것을 Banquo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Macbeth는 마치 나쁜 일을 하다가 들켜서 혼이 난 것처럼 이미 가슴에 욕망들을 품고 있다가 마녀들에 의해 들킨 것처럼 보인다. 아무렇지 않게 던져진 마녀의 말을 예언으로 받아들여[5] Macbeth는 그 즉시 Lady Macbeth에게 편지를 보낸다. Macbeth는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 This supernatural soliciting
>
> Cannot be ill; cannot be good:
>
> (1.3, 130-131)

반면 Banquo는 마녀들을 “Witch”, “Devil”, “instruments of Darkness”라고 부정적으로 일컫는다. 그에게 마녀들의 예언은 사소한 것이며 크게 염려할 것이 아니다. 하지만 Macbeth는 마녀들의 말에 따라 Thane of Cawdor가 되었을 때 “더 대단한 것이 뒤에

[5] Bradley는 마녀들이 “goddesses”나 “fates”처럼 보여지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Shakespeare는 마녀들을 단지 우스꽝스럽고, 성적으로 증오되는 것을 버리는 동시에 두려움과 공포, 또는 신비한 매력의 상상력을 더하기 위해 선택했을 뿐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마녀들은 단지 불쌍하고 누더기 옷을 입은, 마르고, 소름 끼치고, 천박한 앙심으로 뭉친 늙은 여자들일뿐이라고 하고 있다(Bradley 298-299).

있다” 라고 말하며 숨겨진 욕망을 몰래 고백한다:

[Aside] Glamis, and Than of Cawodr:

The greatest is behind.

(1.3.117-118)

그는 실제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에 만족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이중적 감정을 느낀다. 이는 현실로 보이는 실제 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살인의 상상들이 그의 내면적 욕망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Macbeth는 Duncan이 Malcolm을 “The Prince of Cumberland”라고 임명했을 때 내면에서 이미 그를 쓰러뜨릴 결심을 한다:

The rest is labour, which is not us’d for you:

I’ll be myself the harbinger, and make joyful

The hearing of my wife with your approach;

So, humbly take my leave...

[*Aside.*] The Prince of Cumberland!—That is a step

On which I must fall down, or else o’erleap,

For in my way it lies...

(1.4.44-47, 48-50))

Macbeth는 왕이 어떠한 생각으로 Malcolm을 후계자로 세웠을지, 왜 자신에게 더 큰 자리가 내려지지 않는지 등의 여러 상황 판단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 여기서는 Macbeth가 비록 더 높은 권력을 얻고자 마음 먹지만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뤄지게 하기 보다는 자연적으로 되기를 소망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어두운 밤[6]의 별빛들이 그의 어둡고 깊은 욕망을 숨기고자 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두려움으로 눈으로 목격되는 것에 극도로 초조해한다:

Stars, hid your fires!

Let not light see my black and deep desires;

The eye wink at the hand; yet let that be,

Which the eye fears, when it is done, to see.

(1.4.50-53)

Macbeth는 단순하게 Duncan만 살해하면 모든 것들이 섭리대로 자신을 따라 올

[6] Bradley는 암흑(blackness)은 이 비극 작품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한다. 모든 기억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밤이나 어떤 어두운 장소를 배경으로 한다. 칼의 상상력(the vision of the dagger), Duncan과 Banquo의 살해, Lady Macbeth의 몽유병이 모두 밤의 장면들이다. 마녀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음침한 대기 중이나 어두운 한 밤중의 늪(black and midnight hags)에서 춤을 추면서 땅굴에서 Macbeth를 맞이한다. 밤의 암흑은 Macbeth에게 두려움이고, 심지어 공포이다. 그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극의 정신이 된다(Bradley 292).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의 소극적인 태도는 살인을 앞두고도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 그는 자신은 Duncan의 친족이자 신하이며 그를 보호해야 할 집주인이며, Duncan이 천사같이 너무나 온유한 특권을 지녀서 강풍을 건너는 동정이나 천사들이 모든 이들의 눈에 무시무시한 행동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He's here in double trust:

First, as I am his kinsman and his subject,

Strong both against the deed; then, as his host,

Who should against his murtherer shut the door,

Not bear the knife myself. Besides, this Duncan

Hath borne his faculties so meek, hath been

So clear in his great office, that his virtues

Will plead like angels, trumpet-tongu'd, against

The deep damnation of his taking-off...

(1.7.12-20)

이러한 Macbeth의 도덕적 사고(ethical thinking)에 대해 Keller는 칭찬하면서 Macbeth가일을 감행하는데 반대하는 세가지 논거를 다음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 행위를

실행자에게 위험하게 하는 행동에 대한 숙고(the reflexivity of action)(누군가가 도덕적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 혈족관계, 사회적 위치, 환대를 통한 신임의 부름; 그리고 Duncan 왕의 미덕(46-47). 그의 양심 나오는 두려움의 생각은 Macbeth로 하여금 야망을 위해 앞으로 전진하기를 꺼리게 만든다.

Macbeth의 끊이지 않을 것만 같은 무한한 야망과 왕에 대한 연민은 그의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으며 그의 판단과 전진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성격에 대해 오진탁은 Macbeth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용감하고 충직하며 강직한, 그러면서도 야심의 강한 충동과 부당한 승리를 가슴에 품은 이중적 모순적이라고 한다. 인정에 약한 만큼 그는 잔인하지 못하며, 권력에의 의지는 강하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의 행동력이 약한, 어쩌면 참으로 평범한 성격의 인물이라고 한다(15). Macbeth는 성격적으로나 도덕적 가치관 모두에서 야심은 많지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죽일 것만 같은 용기가 있을 거 같지 않다. Keller는 아직까지는 Macbeth의 욕망은 그의 도덕적 사려를 넘지 않고 있다고 본다. 박차(spur)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행하고자 하는 동기는 행하지 않으려는 이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만큼 강하지는 않다:

—I have no spur

To prick the sides of my intent, but only

Vaulting ambition, which o'erleaps itself

And falls on th' other

(1.7.25-28)

그래서 아직까지 그의 사고와 욕망을 나란히 위치시키고 있으며, 그가 혼자가 되면 사고가 이기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의 Lady Macbeth와 대화를 시작할 무렵에는 "우리는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We will proceed no further in this business)라고 말하면서 그의 의지를 밝힌다(47).

하지만 Macbeth는 점점 Lady Macbeth에 의해 도덕적 의지가 움츠러들고 있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서 상담자이며, 아내이다. Keller는 Lady Macbeth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Lady Macbeth performs the role of a dialogue partner here. We can take her as representing either the outward or inward partner. She voices the other side of the ethical debate(47).

Lady Macbeth는 Macbeth로 하여금 행동과 용맹을 같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느냐고 꾸짖으면서, 그가 중하게 여기는 왕관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자신 안에서 비겁하게 살

것인지 결정하라며 강하게 설득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Macbeth는 서서히 그녀의 손아귀 아래서 자신이 원래 가졌던 살인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We will proceed no further in this business)를 져버리고 있다. 그러면서 아내가 상담자 아내가 원하는 이상에 자신의 부합하여 강한 사나이가 되고자 하며, 그러한 사나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감히 하겠다고 한다:

I dare do all that my become a man;

Who dares do more, is non

(1.7.46-47)

Lady Macbeth는 상담자 역에서 더 나아가 강한 모성애로 그를 휘어 잡는다. 그녀는 웃으며 자신의 젓을 빨고 있는 아이를 잡아 뜯어 머리를 부술 수 있다고 말하며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타이른다:

...while it was smiling in my face,

Have pluck'd my nipple from his boneless gums,

And dash'd the brains out, had I so sworn

As you have done to this.

(1.7.56-58)

그녀는 잔인한 목소리로 자신을 대변하면서, 아직까지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는 거짓된 얼굴로 거짓된 가슴이 하는 일을 숨겨야 하는 Macbeth(아직까지 양심이 살아있음을 나타낸다)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조차[7] 못하게 한다. Macbeth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면서 아내의 강인한 사내다움에 살인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하고 있다:

Bring forth men-children only!

For thy undaunted mettle should compose

Nothing but males…

I am settled, and bend up

Each corporal agent to this terrible feat.

(1.7.73-75, 80-81)

2막에서 Macbeth는 살인을 하려는 중에 양심의 환영들로 또 다시 괴로워한다. Duncan을 살해하기 전 그는 "마음의 칼"(a dagger of mind)을 본다. 그는 그것이 허위의 창조물인지

[7] Keller는 이러한 그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을 "실제적인" 추리("practical" reasoning)이라고 일컫는다(Keller 51). Macbeth는 "If we should fail?"이라고 물으면서 행위의 결과까지 생각하면서 걱정한다. 하지만 Lady Macbeth는 "screw your courage to the sticking-place, and we'll not fail."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녀는 일의 위험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 있다.

알지만 계속적으로 자신의 눈에 그려지는 것을 말릴 수 없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칼이 나타나고 눈이 모든 다른 감각들을 바보로 만듦으로 시각과 지각의 분열은 Macbeth가 양심에 거리낌없이 대범하게 행동하도록 자연스럽게 이끈다:

A dagger of the mind, a false creation,

Proceeding form the heat-oppressed brain?

I see thee yet, in form as palpable

As this which now I draw.

(2.1.38-41)

Macbeth는 "더 이상 잠이 없으며 잠을 살해했다고 외치는 소리"(I heard a voice cry, "Sleep no more! Macbeth does murther sleep,"-the innocent Sleep)를 들었다지만 이것 또한 내면에서 들리는 환청일 뿐이다.

살인을 하고 나서도 피 묻은 검을 보며 Macbeth는 여전히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불안해한다. 이에 Lady Macbeth는 또다시 그를 설득한다:

These deeds must not be thought

After these ways: so, it will make us mad.

… A little water clears us of this deed:

(2.2.32-33, 66)

그녀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를 다그친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고 계속되는 생각은 이성적인 마음을 들춰내기 때문에 괴롭기 마련이다. Lady Macbeth는 행동에 있어서 생각은 없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피를 보고 염려하는 그를 향해서 조금의 물로 살인을 지워버릴 수 있는 대단한 것이 아닌 듯이 말하고 있다.[8] 이에 대해 Macbeth는 또 다시 감화되어 "자신의 행동을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제일 낫다"(To know my deed, 'twere best not know myself)고 답한다. 이렇게 그는 자신을 평가할 때 행동과 자아를 나누어가며 점차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의 끈을 놓아 버린다.

3막에서 Macbeth는 살해의 후유증을 겪기 시작한다. 그는 그러한 결과들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살인을 계획한다. Macbeth는 이제까지 심리적으로 의지하던 Lady Macbeth에게도 생각을 숨김으로 혼자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금의 여유도

[8] 하지만 실제로 Lady Macbeth도 약간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이기도 한다. Macbeth가 첫 번째 살인을 하러 간 사이 그녀는 사람들이 깼을 까봐 염려하고(Alack! I am afraid they have awak'd), 또 Duncan이 자는 모습이 그녀의 아버지를 담지를 않았으면 하는 마음(Had he not resembled my father as he slept)을 드러낸다. 하지만 Macbeth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자신의 가슴 저변의 마음을 저버리고 다시 악한 결심을 한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오래 갖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종점을 향하여 내달리기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해석하여 극복하는 법을 모르고 미치는 방법밖에 없었을지 모른다. Mills는 2막의 모든 장면들—손들, 피, 시간, 지옥, 암흑, 용기, 공포, 힘, 아버지—은 궁극적으로 그녀의 상상으로 몰려들고, 실제로 그녀의 정신착란을 고안해낸다고 판단하고 있다(Mills 54).

허용하지 않는다.[9] Macbeth는 살인자를 고용하여 Banquo와 그의 아들 Fleance를 죽이고자 한다. Banquo의 유령이 연회에 참석했을 때 Macbeth는 처음에는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지만 곧 떨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Take any shape but that, and my firm nerves
Shall never tremble: or, be alive again,
And dare me to the desert with thy sword;
If trembling I inhabit then, protest me
The baby of a girl. Hence, a horrible shadow!

(3.4, 101-105)

무사로서 사나이다움에 모든 것을 거는 Macbeth는 만약 자신이 두려움에 떤다면 스스로를 소녀의 아기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함으로 환영조차 그의 악한 의지를 굽히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그는 Banquo의 유령이 사소한 "무서운 그늘"일 뿐 자신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못함을 알고 있다. 점점 더 Macbeth의 살인은 돌이킬 수 없는 숙명이 되고 있다. Macbeth는 피는 피를 가져옴으로 그는 이미 피의 강을 건너 왔기 때문에 진저리 나게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 이제 머리에 가진 이상한 것들이 없어지기 전에 행동으로 옮길

[9] Macbeth의 이러한 고독을 동방숙은 Northrop Frye가 비극의 핵심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The center of the tragedy is hero's isolation, not in a villain's betrayal, even when the villain is, as he often is a part of the hero himself(동방숙 47).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까지는 생각과 감성, 양심이라는 방해물이 행동을 주저하게 했지만 그러한 것들 사이에 괴리가 없어짐으로 자신의 악행을 반추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 진짜 악당이 되어가는 과정에 속하게 된다.

…I am in blood

Stepp'd in so far, that, should I wade no more,

Returning were as tedious as go o'er.

Strange things I have in head, that will to hand,

Which must be acted, ere they may be scann'd.

(3.4.135-139)

Macbeth는 이제 더 이상 양심의 괴로움 따위로 Lady Macbeth로부터 행위를 부추김 받거나 상담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극에서는 자연스럽게 Lady Macbeth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Macbeth는 살인과 야망에 대해 자신만의 판단으로 행하고 있다.[10] Hecate는 Macbeth를 보고 "이기적인 소년"(wayward)이라고 일컫는다. 그는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고 자신의 목적만을 사랑한다. 이러한 그의 끝없는 내적 욕망과 욕심은 그를 계속해서

[10] Macbeth의 고립은 Lady Macbeth의 고독으로 이어진다. 이에 Bradley는 그녀는 말로서 안도를 구해야 하거나, 동정을 찾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이 그녀의 주된 유약함이고, Macbeth의 반항적인 격노에는 짜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Macbeth의 변화된 생각을 통해 우리는 그들 사이의 결속이 느슨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Lady Macbeth는 더 많이 혼자 남게 된다고 한다(Bradley 331).

타락으로 이끈다.

4막에서 Macbeth는 스스로 마녀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예언을 듣고자 한다.[11] 1막에서의 우연적인 마녀들과의 만남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Macbeth는 더 이상의 소극적인 행동가가 아니다. 자의에 의해 적극적으로 마녀들을 기다리며 예언의 말에 신빙성을 갖고 듣기를 희망한다. 욕망에 눈이 어둡고, 살인에 무감각해지면서 그는 이성적인 판단력보다는 마법의 힘에서 자신의 권력의 원천을 지속시키고자 한다. 마녀들의 환영들은 Macbeth에게 여자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만이 그를 해할 수 있다고 하고, "Great Birnam wood"가 "Dunsinane hill" 위로 올라올 때 까지는 놀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 번째 환영을 통해 Banquo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목격하고는 격정적이 되어 Macduff를 빨리 잡아 죽이도록 명령하게 된다. 그는 Lenox 앞에서 가슴에 새겨진 첫 번째 것이 손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12]:

From this moment,

The very firstlings of my heart shall be

[11] 동방숙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Macbeth에겐 마녀들 이외에 다른 누구도 교제할 상대가 없다고 한다. 이제 그는 자신의 지위나 체면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 조차 잃어버리고, 그의 이성은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동방숙 50).

[12] 다시 말하면 Macbeth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생각(특히 양심적 사고)을 하지 않는다. Keller는 Macbeth의 도덕적인 결정에는 사고와 판단이 함께했다고 한다. Arendt도 또한 사고가 경솔함으로 악이 작용하는 잘못된 확신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54). 그래서 Keller는 결국에 Macbeth의 악은 생각이 없음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는 Lady Macbeth의 "생각 없는" 추리에 논리에 의해 초기의 도덕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설득 당했다고 한다. 그녀는 단지 욕망의 즉각적인 만족만을 보며, Macbeth가 좀 더 큰 정황을 가늠하려는 시도들을 거절한다(Keller 55).

The firstlings of my hand. And even now,

To crown my thoughts with acts, be it thought and done:

(4.2.146-149)

Macbeth는 더 이상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떠 오르는 일체의 생각들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악행 또한 남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잔인함으로 나타난다.

5막에서 Macbeth는 계속적인 불안함 속에서도 마녀들의 예언을 믿고 자신은 어떠한 외부적 어려움에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질없는 망상을 가진다. 더하여 계속적인 자기 해부를 통하여 자신의 삶이 시든 노란 낙엽 같으며, 나이가 들면 영예, 사랑, 복종, 많은 친구들을 동반하지만 자신은 그러한 것들 대신에 욕설들과 아첨, 알맹이 없는 한숨들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I have liv'd long enough: my way of life

Is fall'n into the sere, the yellow leaf;

And that which should accompany old age,

As honour, love, obedience, troops of friends,

I must not look to have; but in their stead,

Curses, not loud, but deep, mouth-honour, breath…

(5.3.22-27)

Macbeth는 이러한 자기 인식을 통해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살피지만 정작 눈 앞에 펼쳐진 진실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저 모호한 마녀들의 말만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반어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가 소식통이 와서 산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마녀들을 의심한다. 막다른 골목에서 그는 극도로 자기 중심적이 되어 태양을 보기에 지겹기 때문에 세상이 파멸하기를 바란다. 그는 아직 마녀가 말한 또 하나의 예언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직 모든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Macduff가 자신은 비정상적인 분만으로 태어났다고 밝혔을 때야말로 마녀들을 완전히 의심하고 자신의 살인을 하면서 까지 지켜왔던 권력과 생명이 마녀들의 거짓된 말을 통해 한낱 허상임을 깨닫게 되면서 싸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순간 져버리고 싸우기를 거부한다(“I’ll not fight with thee”). Macbeth는 어린 Malcolm의 발 아래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운명의 수레바퀴 아래서 떨어지게 된다.

그가 결말에 이렇게 처절한 악당이 되도록 작가는 5막에 등장하는 Lady Macbeth의 역할도 한 몫 한다. “sleep walking” 장면들을 통하여 Macbeth의 양심이 행동과 완전히 분리 되게 한다. Macbeth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곧 행동으로 옮겨지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음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없애왔다. 모든 일들을 혼자 결정함으로 Lady

Macbeth가 소중히 여기는 권력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때 Macbeth로부터 소외된 Lady Macbeth와 그의 행동으로부터 소외된 양심의 모습이 겹쳐진다. Lady Macbeth는 점점 Macbeth가 잊어버리고 사는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서, 그것은 그녀에게 허상의 피와 칼들을 보면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Macbeth의 분열된 자아가 투영되어 온다. 그녀는 잠결에 걸으면서 끊임없이 그녀의 의식 속에 묻어있는 피를 손으로 지워 없애려고 한다. 이러한 그녀의 의식은 오진탁에 따르면 Macbeth가 Duncan왕을 살해한 직후 손에 묻은 피에 대해 실제적으로 의식했던 그 공포와 동일한 것으로 화하면서 그녀의 인식 과정에 비례해 가는 그녀의 의지적 무력감과 파멸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58):

> Here's the smell of the blood still: all the
>
> Perfumes of Arabia will not sweeten this little
>
> Hand Oh! Oh! Oh!
>
> (5.1.48-50)

그녀는 앞서 조금의 물로도 피를 씻어낼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라비아의 향유로도 씻어낼 수 없음을 알기에 더욱이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의식과 동일시되는 Macbeth의 양심의 사고를 대변하면서 배가 되는 주인공의 절망을 느끼게 한다.

또한 Lady Macbeth의 “sleep walking”은 Macbeth의 잃어버린 잠을 대변하기도 한다. Macbeth는 앞서 Duncan왕을 살해 한 후 자신은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의 숙면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밤 중에도 낮 중에도 모든 시간에 사고를 하는 의식의 눈이 잠겨있는 대신에 아무 고민 없이 쉴 수 있는 휴식을 잃어버린다. 그로 인해 잃어버린 잠을 잘 수 있는 행위는 그와 동일시되는 Lady Macbeth의 몽유의 행동으로 대체되어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그녀의 “sleep walking”은 결국 Macbeth의 무의식의 양심의 산물인 것이다.

III. 결　　론

이와 같이 Macbeth는 그칠 줄 모르는 권력에의 욕망으로 인해 자신의 무덤을 판다. 그는 계속적으로 행동을 의식하고 분석한다. 그는 Duncan왕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을 하기까지는 오랜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과 사고 과정을 거친다. 그에게 있어서 생각함이란 도덕성을 의식하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악행을 반성하도록 타이르는 잣대다. 그러한 그에게 악행을 하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야망의 끝은 인간된 도리를 지키는 것보다 가벼웠다. Macbeth는 외부의 간섭을 받고 있지 않을 때, 즉 Lady Macbeth의 강한 설득에 휩쓸리지 않기까지는 스스로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준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차츰 그는 변해갈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는 Lady Macbeth와 마녀들이 작용하였다.

Lady Macbeth는 그로 하여금 동물적인 야성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는 남자다움이란 용맹함과 잔인함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실제로 “man”은 인간과 남자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성과 동정을 지녔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다. 하지만 Lady Macbeth는 Macbeth로 하여금 잔인성에 해당하는 성격만을 가지도록 하고, 인간이 지니는 사리를 판별하여 사건의 후에 생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상상하지 말도록 권고한다. 그녀의 설득은 Macbeth가 내면의 욕망을 드러내는데 성공하지만, 그 과정을 후에 Lady Macbeth 자신은 오히려 권력에서 후퇴되어 고립되어 버린다. Lady Macbeth와

Macbeth는 많은 부분에서 공유되는 점이 있다. Lady Macbeth의 목소리가 강할 때는 Macbeth가 약하며, Macbeth의 목소리가 강할 때는 Lady Macbeth약 쇠퇴된다. 또한 두 명 모두 각자의 마음 속에 피와 살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 그 시간 과정에서 차이는 있지만, Lady Macbeth는 차츰 Macbeth가 잃어 버리는 의식을 대신하면서 과거에 Macbeth가 느꼈던 양심과 죄책감을 계속적으로 반추하고 드러낸다. 그녀의 의식 없는 듯한 몽유병의 행동은 또한 Macbeth의 잠을 잃어 버린 무의식의 세계를 채워준다. 이렇게 그들은 강한 결속으로 정신을 동일시하고 있기에, Macbeth는 많은 부분 Lady Macbeth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Macbeth는 Duncan왕을 죽인 후부터 점차 아내의 충고보다 오로지 마녀들의 말에 의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미치는 마녀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Macbeth는 마녀들의 말을 절대시하고, 초자연적인 것으로 신뢰한다. 하지만 마녀들은 Macbeth라는 인간을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Macbeth 피실험자를 설정하여 인간의 욕망이 어떠한 결과를 양산하는지를 실험하는 듯 보인다. 그들의 사실인 듯 애매모호한 말은 진지하지 않다. 이미 야망이 지나친 Macbeth에게는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조차 마비된 후다. Banquo는 같은 말을 들어도 별 뜻 없이 지나치지만, Macbeth는 그 말이 다른 어떠한 말보다도 권위를 지니는 제일의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자기 사랑과 자만심, 지나친 욕망이 그를 타락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Lady Macbeth와 마녀들과 같은 외부적 요인들도 비극의 심연으로 빠지게 한 주된 요소들이다.

참 고 문 헌

A. Primary Sources

Shakespeare, William. *Macbeth.* Ed. Muir, Kenneth. Croatia: The Arden Shakespeare Press, 1984.

B. Secondary Sources

동방숙. [Macbeth의 파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3.

오진탁. [Macbeth의 성격과 비극적 현실]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5.

정일균. [Macbeth에 나타난 fear의 양상]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6.

Aristotle. *A Translation of Aristotle's Poetics.* Tr. Golden, Le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c1968.

Bradley, A. C. *Shakespearean tragedy.* Ed. Brown, John Russell. Basingstoke, Hampshire: Macmillan, c1992.

Keller, J. Gregory. *"The moral thinking of Macbeth,"* Philosophy and Literature 29 (*April* 2005): 41-56.

Mills, Christopher and Holderness, Graham. *Critical essays on Macbeth.* Ed. Cookson, Linda and Loughrey, Bryan. Harlow, Essex: Longman, c1988.